

함께 여는 내일

Vol. 1



사단
법인

인천
청소년
문화
재단

| CONTENTS |

- 03 이사장 인사말
- 04 연혁, 미션, 비전, 핵심가치
- 06 기관소개
- 09 내일을여는이야기1 _ 가족상담소
- 10 내일을여는이야기2 _ 내일을여는자활쉼터
- 12 종사자 이야기 _ 계양시니어클럽
- 14 후원자 이야기 _ 쪽방상담소
- 16 특별한 소식1 _ 내일여성쉼터
- 17 특별한 소식2 _ 법인
- 18 사진으로 보는 2024년
- 21 2024년 후원자
- 23 후원안내



2025. 01 _Vol. 1

발 행 일 2025년 1월
 발 행 처 인천내일을여는집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91
 전 화 (032) 556-8004
 팩 스 (032) 544-8348
 홈페이지 <http://www.homelessshot.or.kr/>
 디 자 인 디앤디피아 (<https://dndpia.com>)



이사장 인사말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지난 2024년 한 해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후원금을 보내 주셨고 자원봉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각별히 위로를 드리고 싶은 것은 뜻하지 않은 국내 정치적 격변기 중에 여러분이 받으셨을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앗시리아와 신흥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또 다른 강대국 이집트에 빌붙어 민족의 생존을 찾으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결론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특정 강대국 앞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약속을 믿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사회에 가득 차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곧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내일을여는집에 있어 많은 도전과 성장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어려운 시련과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더 단단해졌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섬김은 그 어느 해보다도 빛났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마을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과 함께 했던 <실버자원협동조합>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내놓은 성과는 노인 일자리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몸부림은 1,200여 명의 후원자들을 마을잔치로 만들어내는 유례없는 [후원의 날]로 마감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 날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더 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의 명언을 인용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를 다져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인생에서 받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 이웃에게 준 것으로 평가된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걸어온 길은 흔들릴 수 없는 길이라고 다짐하고, 그래서 이 길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겠다고 외쳐 봅니다.

2025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인천내일을여는집 이사장

이 준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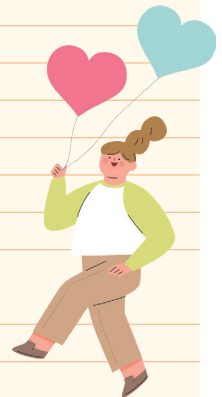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은 1998년 IMF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사회 내 급증하는 실직자를 위해 『**실직자를 위한 쉼터 및 자활모임터**』로서 창립하여, 2000년에 인천시로부터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으로 정식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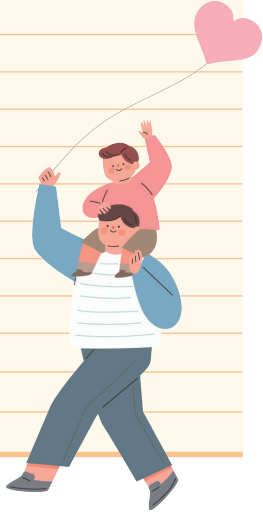

실직자를 위한 **상담소 및 무료급식소**, 실직 노숙인을 위한 쉼터와 일터로 **재활용센터**를 만들었으며, 실직자의 자녀와 결식아동을 위한 **공부방**, 여성노숙인을 위한 **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쪽방지역 주민을 위한 **쪽방상담소 및 푸드뱅크**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일터로서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혁



1998년 08월	인천광역시, 인천내일을여는집 노숙인보호사업기관 선정, 해인공부방(해인지역아동센터) 개소
1999년 01월	KSCF학사단과 효성동 일대 무허가 주택촌 실태조사 종교결연, 쌀 전달사업 실시
1999년 10월	인천내일을여는집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개소
2000년 07월	인천광역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7월 24일)
2000년 08월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부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개소
2000년 09월	사회복지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이준모 상임이사)
2001년 01월	인천 쪽방상담소 개소(보건복지부 지정)
2001년 04월	인천내일을여는집 자활사업장 재활용센터 개소
2001년 11월	자활의 집 개소
2002년 01월	제1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개강(여성부 인정)
2003년 03월	계양구재활용센터 계양구로부터 완전위탁(~현재)
2003년 11월	여성노숙인자활사업장 '내일을여는사람들'(유기농식당) 개점
2004년 03월	노인일자리를 위한 인천계양시니어클럽 위탁기관 선정(보건복지부)
2005년 09월	인천계양시니어클럽 어머니밥상 개소
2006년 03월	사회적일자리사업 동농직거래상생사업단 선정(노동부)
2006년 10월	단신계층주거지원사업 주관단체 선정(대한주택공사)
2007년 01월	거리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개시(~현재)
2008년 07월	쪽방지역주민을 위한 자활사업장 개소
2008년 10월	인천내일을여는집 10주년 기념 후원의 날 개최 가족상담소 인천광역시 상담소평가 1위 선정
2008년 12월	동농직거래상생사업단을 노숙인 자활을 위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현 동농살림)
2009년 03월	노숙인 고용지원센터 개소(노동부)
2009년 07월	계양구푸드마켓 개점(보건복지부 지정)
2011년 01월	노숙인자활을 위한 계양구재활용센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고용노동부)
2011년 06월	청와대 서민대책회의 참석(이준모 상임이사, 계양구재활용센터 모범사례발표)
2011년 11월	가족상담소 인천광역시 평가 1위,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2011년 11월	인천계양시니어클럽 어머니밥상 개소식
2012년 09월	쪽방상담소 기차길옆 희망일터개소
2012년 12월	인천계양시니어클럽 은빛 미용실 개소
2013년 06월	인천쪽방상담소 신축 입주(동구 화도진로 186번길 10, 만석동 희망키움터)



2014년 01월	폐휴지 수거자를 위한 협동조합 결성 가족상담소 여성가족부 전국평가 1위	
2014년 05월	남성노숙인쉼터 사회적기업 노동통합형 사업개소	
2014년 09월	제15회 사회복지의날 대통령상 표창(이준모 이사장)	
2015년 02월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취임 및 업무 계약(이준모 이사장)	
2015년 10월	인천녹색연합 표창(인천계양시니어클럽) 인천녹색연합평생길동무상 수상(이준모 이사장)	
2015년 11월	실버자원협동조합 설립(폐, 휴지 수거 어르신을 위한 지원사업)	
2015년 12월	12월 노숙인지원센터 전국 평가 1위	
2017년 09월	사회적기업 활성화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해인교회)	
2019년 05월	남성노숙인쉼터와 여성노숙인쉼터 통합(내일을여는자활쉼터)	
2020년 09월	인천계양시니어클럽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20년 11월	인천내일을여는집 가족상담소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2021년 04월	사회적기업 도농살림 계양산성매장 개소	
2021년 09월	사회적기업 도농살림 도농카페 개소	
2022년 01월	부천 여성의 쉼터 위탁(부천시)	
2022년 07월	계양제로웨이스트샵 개소	
2022년 11월	내일여성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 표창	
2023년 02월	필리핀 내일을여는집 개소	
2024년 05월	실버자원협동조합 10주년 기념 및 성과보고회 개최	

미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잠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잠자리를,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지역주민을 섬김으로써 내일의 희망을 열어가고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비전



하나님의 선교 일꾼으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지역공동체 모두가 함께 더불어 민주적이고 건강한 지역적인 대안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가치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며
우리는 자립 자활할 수 있는 평화적이고 경제적인 대안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기관소개



내일을여는자활센터



절망의 자리에 희망이 되어드리는

내일을여는자활센터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리 노숙인들과 노숙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상담을 통해서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개] 남·여 자활 노숙인쉼터 운영(보호사업), 상담사업, 사회심리 재활사업, 주거지원사업, 자활 및 고용지원 사업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91(내일을여는집 2층)

☎ 032) 544 - 6330

무료급식소



따뜻한 한 끼로 나누는 사랑의 메시지

무료급식소는 계양구 일대에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결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통해 노인고독과 우울증 및 노인자살 등 사회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지역주민, 이웃 간에 서로 위로하며 화합하는 매개체가 되어 계양구 노인들의 삶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91(내일을여는집 3층)

[이용시간] 낮 12시

☎ 032) 556-8004

쪽방상담소



쪽방주민들 곁엔 언제나

인천쪽방상담소는 월세지원, 생계지원, 무료급식, 의료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쪽방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자활공동작업장, 법률서비스, 취업정보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쪽방 주민들의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사업소개] 상담사업, 생계지원사업, 의료서비스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 특별사업, 동절기사업

[계산본소] ☎ 032) 543-633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02-1

[만석본소] ☎ 032) 772-6330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86번길 10 희망키움터 3~4층



계양구 푸드뱅크&마켓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계양구 푸드뱅크는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유식품 자원을 식품제조 업체나 개인 기부자로부터 기부를 받아 우리 사회 소외 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품지원복지 서비스입니다. 계양구 푸드마켓은 후원자들로부터 식품 등 생활필수품을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 나눔 장터로서 저소득층이 매장에서 원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무상이용 마켓입니다.

[후원자혜택]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의 의거하여 도매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기탁식품 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32) 551-1377

해인지역아동센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는

해인지역아동센터는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연계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대상]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45번길 21-5, 3층

[이용비용] 무료

☎ 032) 543-8004

가족상담소



서로를 보듬으며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가족상담소는 지역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교육함으로써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 법률, 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개] 개인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폭력추방 캠페인,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사회복지회관 1층)

☎ 032) 541-1366



일하는 백세,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인천계양시니어클럽

인천계양시니어클럽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이 겪고 있는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고자 만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경륜을 활용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 노인, 활기찬 노후,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기관입니다.

[사업소개] 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사회복지회관 2층)

☎ 032)551-6330

자원 순환 · 착한 소비 · 나눔 문화 · 환경 사랑 실천하는



사회적기업 계양구 재활용센터

계양구재활용센터는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지역공동체 자활사업장으로, 실직노숙인들이 참여근로자로 근무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 기부해 주시는 중고가구, 중고가전, 도서, 의류, 생활용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수선의 과정을 거친 후 알뜰매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참여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205번길 11-3 (사회적기업회관, 계산새마을금고 뒤)

[운영시간] 월~토요일 9~18시

☎ 032) 555-8899 / www.recle8899.co.kr

도시에는 건강한 먹거리를 !

어려운 이웃에게는 일자리를 ! 농촌에는 희망을 !



사회적기업 도농살림

사회적기업 도농살림은 실직 노숙인과 장기 실직자들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친환경 농수산물을 도시와 농촌간에 직거래 하여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도시에는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촌에는 판로를 제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함으로써 공동상생을 꿈꾸는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향긋한 공정무역 커피와 편안한 분위기의 도농카페, 단체 세미나를 위한 도농교육장, 계양산의 간식을 책임지는 계양산성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205번길 11-3 (사회적기업회관)

[운영시간] 월~토 9~18시

☎ 032) 555-7332 / www.edonong.com



가장 힘들 때 만난 희망의 전도사

엄마 김소망님이

(사)인천내일을여는집 가족상담소를 만나

희망을 가꾸게 된 이야기



Q. 소망씨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망입니다. 저는 49세, 세 자녀의 엄마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기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Q. 가족상담소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업을 하는 남편에게 10여 년 넘게 생계비를 계속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남편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대출과 사채까지 끌어 쓰며,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오로지 제가 책임져야 했어요.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감당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수년간 저와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폭력을 가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의 이혼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니, 반대로 자살하겠다고 협박을 여러 차례 하며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예민한 시기를 겪고 있는 막내에게 강도 높은 정서적 학대와 다른 자녀에게 행한 가스라이팅으로 가족 간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갈등과 폭력 속에서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가족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Q. 가족상담소와의 만남이 어떤 도움과 변화를 주었을까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것이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상담을 받으며 따뜻한 위로를 받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독립을 하기로 결심하고 가족상담소에서 주거지원을 연계 받아 막내와 함께 지내며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는 청소년00상담센터를 연계 받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도 저도 마음이 편해지니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가 아니어서 든든해요.

Q. 김소망님에게 '내일'이란 무엇일까요?

목표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요. 계속 회사에 잘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새로운 나의 집에서 세 아이와 함께 하하 호호 웃으며 소소한 일상을 지내고 싶어요. 뽀족하고 날카로운 가정의 분위기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화되면서, 아이들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의 기억을 나누기를 바래요. 힘든 시기에 가족상담소의 다정하고 친절함 관심과 지원이 저에게 희망을 갖게 한 것 같아요. 이제 한고비 넘겼지만 앞으로도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

내일을여는자활쉼터 에서 자립의 길을 찾은

이 재 훈 님의 이야기

신의 노여움을 사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은 그리스로마신화의 시지푸스를 기억하시나요?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면 굴러 떨어져 다시 올려놓아야 하는 고역이 끊임없는 형벌. 시지푸스의 삶은 그야말로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산 끝을 향해 바위를 한 바퀴 굴릴 때마다 작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갔다는 찰나의 성취감이 그에게는 매 순간 행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목표를 이루었을 때보다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여기 절망 속에서 희망을, 행복을 찾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일을여는자활쉼터에서 자립의 길을 찾고 다시금 새 삶을 시작한 이재훈(가명) 님의 이야기입니다.

Q. 내일을여는자활쉼터에 입소하셨을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손가락 골절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어머니 집에서 몇 달간 신세를 졌습니다. 나이 오십에 어머니 집에 의존하게 되니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곳에 기대게 되더라고요. 가족 간 갈등도 커졌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로 해결하려다 상환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빚 독촉은 점점 심해졌고, 한계에 다다르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몇 날 며칠 거리를 헤매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사용했던 줄이 끊어져 자살 시도는 미수로 끝났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지만, 주머니엔 오백 원짜리 동전 하나뿐이었고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내일을여는자활쉼터를 알게 되었고,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Q. 쉼터에서의 생활은 어떤 변화의 시작이 되었나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쉼터에 입소하긴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우울증과 자괴감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래도 쉼터에서 하나씩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조금씩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쉼터에서 안내해 준 대로 인천내일을여는집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쉼터 가까이 해인교회가 있어서, 한때 끊겼던 신앙 생활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 자신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고, 저를 보듬어주는 분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폐암 말기로 기운조차 없던 한 분과 2~3일간 같은 방을 사용했던 일입니다. 그분의 대변을 처리하며 케어해야 했는데, 과거의 저라면 상상조차 못 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며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저를 발견했고, 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쉼터에서 1년 6개월 정도 생활하며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주저했지만, 이제는 “노력하면 답이 나온다”는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덕분에 2024년 3월에는 작은 월세 집이지만 저만의 공간을 마련했고, 아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고, 그 지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끝없이 작은 행복들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Q. 이렇게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지해준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인교회의 김영선 목사님과 이준모 목사님, 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그리고 신앙을 통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스스로에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다짐을 끊임없이 했던 것이 제 삶의 변화를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읽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 하나님과 인천내일을여는집 이사장 이준모 목사님, 내일을여는자활 쉼터 선생님들, 그리고 제 삶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라도 가족, 친구, 사회복지기관, 행정복지센터 등 누구에게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다시 시작하는 힘은 작은 대화와 공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지금이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절망은 희망을 굴릴 수 없지만,
희망에게는 절망마저 굴려버릴 힘이 있습니다. ”**

인터뷰 내용 외 인용 - 양준일, '짧은 말 긴 생각'



내일여는사람들 인천계양시니어클럽

정 나 열 사회복지사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정나열입니다.
저의 생활신조는 '맡은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하자'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근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저의 성격이 계양시니어클럽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에서도 사람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항상 사람들의 필요와 상황을 먼저 생각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조율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을 철저하게 살피며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동시에 기관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앞으로는 클라이언트와 동료들 그리고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Q. 기관과 업무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천계양시니어클럽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지역사회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발하여 확산 보급하는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주로 지역 내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천계양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공익형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있으며,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으로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단이 있으며, 네 번째로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참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참여자에게는 민간분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참여자의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는 시니어 인턴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자를 민간기업 등의 수요처로 취업을 알선해 주는 취업알선형 사업이 있습니다.

인천계양시니어클럽에서 저의 담당업무는 회계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조금이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보조금관리 및 기관회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과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이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와 많은 시간을 기울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감이 있지만 예산집행이 원활히 진행될 때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계양시니어클럽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며 성취감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활동 기록 및 평가를 담당하며,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봉사자들이 봉사를 통해 사회 참여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봉사자분들이 어르신들을 섬기며 내 일처럼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Q.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처음 노인 일자리 담당자로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쯤, 한 여성 어르신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며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실버강사 일자리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더니 처음에는 좋다고 하시면서 참여하기로 약속을 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없다며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저 믿고 한 달만 해 보시고 결정해 보세요."라는 말과 함께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드렸더니 점차 자신감을 되찾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르신이 나중에 다른 어르신들에게 '일을 하면서 삶에 활력이 생겨서 좋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오실 때마다 '선생님이 그때 내 손을 놓지 않아서 고맙다. 어린이집에서 종이 접기 수업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제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사회적 역할을 재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 또한 매우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복지사님에게 내일을여는집이란?

인천내일을여는집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노숙인, 장애인, 청소년, 취약계층 또는 정신 질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자립하는데 우리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일을여는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귀한 사역에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을여는집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와 만나면서, 이들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그에 수반하는 행정업무



는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이준모 이사장님을 통해 사람 중심의 경영,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배우면서 사회복지는 거룩한 책임과 보람이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후원자분들께 한마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 덕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희망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어렵고 고달픈 삶에 빛이 되고, 새로운 가능성이 되며, 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노숙인과 취약계층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자립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중한 마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글을 소개하고 싶어 적어 봅니다.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가 피곤함을 씻어주고, '고맙워'라는 말 한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하며,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가 부담을 덜어주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잘한다'는 말 한마디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의 세심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없애주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기분 좋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수고했어', '괜찮아', '사랑해', '잘하고 있어'라고 건네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인천쪽방상담소 후원 기업 <하버파크호텔>

하버파크호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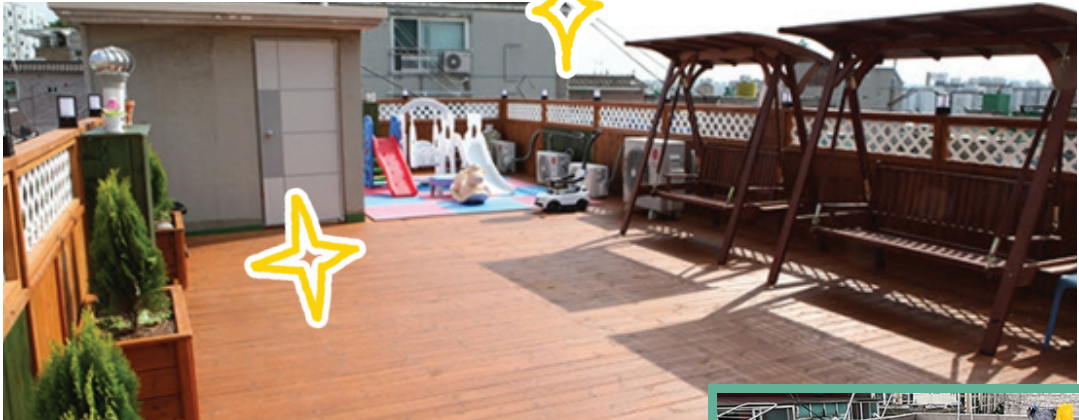
하버파크호텔은 동북아시아 비즈니스의 요지,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숙박 그 이상의 감동이 있는 호텔입니다. 최고의 비즈니스와 행복한 여행을 위해 품격 있고 차별화 된 서비스로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하버파크호텔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인천쪽방상담소에 아름다운 후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하버파크호텔과의 첫 만남

하버파크호텔은 2020년에 인천관광공사와 협력해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첫 후원 활동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하버파크호텔 임직원들이 참여한 중고물품 바자회 수익금으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을 기부해 주시며 소중한 인연이 시작되었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여성쉼터 옥상 공사



“내 생애 이렇게 멋진 곳에서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을 누리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요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깨기 싫은 그런 꿈이요.”

여성쉼터 입소자 이○○님께서는 요즘 매일 옥상에 올라가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확 달라진 멋진 옥상 의자에 앉아 멋진 산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노라면 지난날 가정폭력으로 힘들었던 그 세월의 한이 치유 받는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본래 본 쉼터 옥상은 울타리가 너무 낮고, 많은 전선들이 얹혀있어, 안전상의 이유로 입소자분들이 옥상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노출의 우려로 인해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분들이기에, 바깥공기를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옥상에 입소자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였는데요.

정말 기쁘게도, 지난 8월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의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옥상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옥상에 방치되어 있던 오래된 구조물을 철거하고, 울타리를 높여 안전을 기하였으며, 깔끔한 우드 데크와 그네 의자를 설치하여 보기만 해도 마음에 여유를 가져다주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놀이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외출이 자유롭지 못해 시설에만 머물러야 했던 아이들의 답답했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옥상을 보시고는 너무 좋아하시던 입소자분들, 그리고 새로 생긴 미끄럼틀을 타며 좋아하던 아이들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옥상에 올라가셔서 담소도 나누시고 바람도 쐬는 입소자분들이 많아지시면서, 날씨가 추워짐에도 불구하고 쉼터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제 멋진 옥상에서 크게 내쉬는 숨은, 내일의 절망이 담긴 피해자의 한숨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이 담긴 생존자의 힘찬 호흡이기를 바라며, 영산조용기자선재단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천내일을여는집 법인을 통해 만난

몽골가족 이야기

작년 9월 인천내일을여는집에 찾아온 아마르자르갈의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참 막막했습니다.

이미 그 한 해 전 몽골에서 골육종 진단을 받고 한쪽 다리를 잘라낸 외국인 청소년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애처로웠고 세부 사정은 더 안타까웠습니다.

몽골에서 전 재산을 팔고, 이웃들의 성금을 모아 마련한 치료비를 모두 썼고, 월세를 낼 돈마저 떨어져 오갈 데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내일을여는집을 찾아와 게스트하우스를 제공받아 거주하게 되었고, 생필품과 식료품 등 최소한의 필요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의 어머니 우연가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큰 병도 걱정이지만, 고액의 치료비는 온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큰 짐이었습니다. 2주에 한 차례씩 받는 항암치료에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의 진료비가 들었고, 항암만으로는 깨끗이 사라지지 않는 폐결절을 확인하고 수술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1,800만 원이라는 거액이 필요했습니다. 내일을여는집에서 모으는 성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여러 기관의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치료목적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 지원금이나 혜택들은 모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실망의 연속이었으나 아마르자르갈 가족은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받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수술 며칠 전, 세브란스 사회사업팀에서 1천만 원 지원이 확정되고, 몽골에서 모금하여 보내온 돈이 800만 원이라는 소식은 그야말로 기적 같았습니다.



폐결절제거수술 후 더 이상 항암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추적검사만 받으며 관리해도 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지요. 그 소식은 내일을여는집과, 함께 기도해 온 해인교회 모두에게 기쁨이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르자르갈의 머리는 까만 머리칼로 뒤덮였습니다. 원래도 장난기가 많고 웃음이 많은 가족이었기에 한결 짐을 던 얼굴은 늘 밝고 생글거립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안남중학교 2학년에 편입하여 3월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나이로는 고3에 진학해야 하지만 한국어가 서툴고 그간 학업을 중단하였기에 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 타국에서 집과 병원만 오가던 아마르자르갈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재밌고 즐겁다고 합니다.

한편, 절단한 다리에 의족을 달기 위해 재활치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어 재활치료와 의족 구입도 매우 큰 부담이지만,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항암치료를 견뎌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왔듯이 잘 헤쳐가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르자르갈의 꿈은 의사입니다. 아버지도 몽골에서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해왔고, 한국의 발전된 의료기술로 병을 치료받았기에 한국에서 공부하여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몽골에는 어린 동생들이 있어 곧 부모는 몽골로 돌아가야 하고, 재활치료도 의족도 의대에 진학하는 것도 길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밝고 맑고 긍정적인 심성으로 잘 이겨가길 응원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사)인천내일을여는집

1월



행동하는의사회
쪽방주민 무료진료

2월



(사)인천내일을여는집
정기총회

3월



2024년
기부식품등제공사업 담당
워크숍 참석

7월



거리노숙인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 진행

8월



삼복 삼계탕 나눔 행사

9월



2024년 여성폭력예방
정책토론회



4월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5월



쪽방어르신들을 위한
제16회 『사랑과 나눔의
합동칠순잔치』

6월



거리특화자활사업 참여자
간담회 진행



제8회 쪽방주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 『행복을 여는
사랑의 나눔축제한마당』



26주년 기념 후원의 날



제12차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몰래산타 이웃사랑 나눔행사

10월

11월

12월



2024년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신규평생회원

채원준 도정훈 임경제 김종화 김재용 오승호 정지현 김가자

평생회원

강해옥 거목교통 고경희 고영래(용광교회) 구연화 권민구 권민선 권은중 김가자 김경복 김광웅 김광울 김라윤 김란희 김명집/오귀순(인천가공) 김문섭 김민강 김보라 김상곤 김서윤 김석순(계양자동차학원) 김선미 김성민 김성자 김승재 김시우 김애경 김연목(봉평메밀촌막국수)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호 김옥순 김용석 김육란 김윤재 김은이 김은희 김인곤 김인규(새마을회 회장) 김일문(물망우) 김재연 김재용 김재화 김정순 김종화 김지원 김진규(한샘광고인쇄) 김춘자 김충겸 김태준 김포계양시찰회 김향옥 김현리 김현옥 김희천 나은숙 남상구 남향희 도정훈 류종화 마리아 문보경 문일섭(해성기공) 물망울 민혜경 박경숙 박경화 박덕인 박덕환 박동석(용광교회) 박동일(성신교회) 박동필 박무진(동양설비) 박미혜 박선영 박선화 박수현 박순정 박승찬 박용성(대한산업개발) 박원용 박은경 박정수 박정철 박종숙 박지훈 박철규 박혜란 방소현 배춘수 백형숙 서영선 서용주(한신교회) 서재연 손성재 손재오 신영애 심상은(원미삼성병원) 안상철(삼은교회) 안성규(에스카테크) 양재범 양태정 엄경아 엄진용 엄지원 오광섭(가리봉교회) 오귀순(인천가공) 오승호 오이봉 오재근(아세아교회) 원명옥 유명길 윤은정 윤의영 이금옥 이대윤 이동원 이문재 이미순 이성모 이성재 이승아 이심국 이연복 이연희 이영우(KSCF) 이준모 이진국 이춘웅 이해영 이해인 이현주 이현호 이효선 인천쪽방공동작업장 임경제 임기현 임만석 임미수 임정하 장흥재 전동현 전성식 전우곤(다원병원) 전은실 전주석(용광교회) 정개임 정민재 정영호(한림병원) 정인재 정인조(지평교회) 정지현 정창섭(강원석유) 정현정 조래섭 진철(예실중앙교회) 채원준 채혜준 최명희 최병숙 최용섭 최재희 최희정 한관택(가곡교회)한상관 현정선 홍선미 황혜영

정기후원

강계정 강명구 강명례 강미월 강민혁 강병주 강선미 강영옥 강은정 고순복 고양식 고연우 고 원 고정자 공석숙 광병호 광양심 광의석 권수란 권연숙 권형진 기민자 길미숙 김강일 김건수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 김경숙 김경애 김경용 김경임 김경호 김교욱 김규진 김기범 김나연 김다경 김대오 김대용 김대웅 김대희 김덕조 김도아 김도희 김동관 김동선 김명숙 김명순 김명종 김문숙 김미경 김미나 김미선 김미영 김민선 김민수 김민영 김백립 김범종 김봉희 김상곤 김 석 김선미 김선옥 김선정 김선호 김성래 김성수 김성원 김성준 김성훈 김수연 김순영 김순자 김순자 김승재 김신자 김애경 김연목 김연숙 김영단 김영례 김영미 김영삼 김영석 김영수 김영숙 김영옥 김영주 김영진 김영택 김예찬 김옥순 김용철 김우림 김우식 김유미 김윤기 김윤수 김윤수 김윤재 김은덕 김은순 김은실 김은지 김은희 김이화 김재수 김재순 김재현 김정빈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원 김정희 김제용 김종일 김종화 김주현 김준민 김중정 김지연 김지화 김지현 김지환 김진희 김창욱 김 청 김추자 김춘순 김춘자 김충겸 김태란 김태연 김태윤 김태익 김하영 김현서 김현수 김형만 김형배 김형철 김형화 김혜란 김혜리 김혜영 나영심 나은숙 나와자 남기윤 남상익 남윤후 남중기 남희성 노복자 노영희 동화평 류종화 명형진 문미숙 문 웅 문인길 문장영 문정에 민경대 민순복 박가람 박경숙 박경자 박경학 박경화 박관병 박기용 박덕인 박동필 박만근 박명임 박명옥 박미숙 박미자

박미정 박미향 박미혜 박복군 박석례 박성국 박세아 박순자 박승복 박시현 박여경 박영기 박영미 박영자
 박영주 박영준 박완성 박운탁 박유순 박윤제 박제현 박종숙 박주원 박준상 박지현 박지훈 박진희 박찬명
 박찬비 박찬업 박한임 박현숙 박현이 박형우 박혜경 박혜란 박효은 박효진 방용만 배영심 배제천 백명숙
 백봉식 백새롬 백아순 백영희 백정옥 백훈자 변래진 변민건 사정섭 서광봉 서광자 서권하 서선규 서세나
 서영경 서정선 서철민 서하정 서현정 성난실 성난희 성수연 성연지 소순자 손미정 손선자 손순자 손영희
 손재오 송미정 송분례 송인진 송재석 송호승 송호진 순옥희 신대식 신명호 신선영 신선호 신수영 신순애
 신영숙 신영자 신인식 신하연 신현수 심윤숙 심은정 심충식 안금자 안대영 안대찬 안문수 안상수 안숙자
 안순심 안옥순 안옥이 안혜승 양선우 양영희 양예진 양인철 양흥열 엄경아 여석현 연규순 연철호
 오경숙 오광섭 오명화 오부경 오순화 오 영 오인숙 오정숙 오주는 오지희 오창수 오하란 오호영 왕학선
 우나래 우정석 원두연 원미연 위경희 유광일 유도섭 유명길 유 별 유순자 유승민 유연수 유점이 유정순
 유정자 유창일 유태선 유해정 유 환 유희곤 윤도현 윤명신 윤숙희 윤윤경 윤행숙 윤희순 은순남 이건호
 이경순 이경옥 이경희 이공덕 이광자 이근희 이금옥 이길순 이길행 이덕기 이덕심 이덕현 이동선 이동순
 이란희 이명구 이명소 이명자 이명희 이문호 이미경 이미순 이미애 이민기 이민수 이병기 이병덕 이복단
 이봉수 이상민 이상준 이상필 이선훈 이성문 이성병 이세영 이송희 이수정 이순녀 이순옥 이승권 이승복
 이승아 이승준 이 영 이영남 이영라 이영미 이영석 이영송 이영수 이영자 이옥순 이옥자 이우성 이유주
 이윤희 이은경 이은서 이은숙 이은영 이은정 이은채 이은희 이재분 이재숙 이재중 이점숙 이정대
 이정희 이종민 이주실 이주엽 이주현 이종근 이지숙 이지현 이진경 이진영 이철준 이춘식 이춘웅 이태형
 이해인 이후상 이희연 이희영 이희진 인충순 임계분 임도순 임명숙 임미수 임신애 임성혜 임수영 임승철
 임영란 임영조 임은범 임정택 임정미 임한순 장경석 장 백 장 설 장순옥 장양숙 장영록 장현숙 전남순
 전동현 전선경 전영숙 전정식 전진용 전진우 전희숙 정광선 정근자 정나열 정나필 정대훈 정도순 정미자
 정병조 정성광 정성이 정세미 정승호 정양순 정영란 정영숙 정용선 정원순 정정자 정창훈 정평화 정혜순
 조경성 조경희 조규남 조균석 조기열 조길래 조래섭 조미란 조봉현 조삼일 조성인 조수남 조수석 조수정
 조승현 조영희 조옥희 조은구 조재원 조정경 조정순 조찬숙 조한준 조화현 지영숙 지향옥 진대윤 차애자
 차양례 차영락 차은희 차제홍 차철귀 천지혜 최명희 최미란 최병수 최복송 최서빈 최선영 최소원 최수용
 최순금 최영미 최옥희 최용석 최원미 최윤태 최윤희 최인귀 최재덕 최재희 최정진 최지인 최지혜 최현규
 최희정 표권필 표윤자 표창식 하용국 하윤기 한경식 한민규 한선희 한수정 한수진 한연실 한인규 함재원
 허정숙 허정민 현남례 현정남 현정선 현지숙 홍경선 홍경옥 홍권표 홍문숙 홍복임 홍성춘 홍성희 홍순임
 홍순철 홍승우 홍인숙 홍종녀 홍찬숙 홍현옥 홍화숙 황경범 황경식 황규순 황미애 황선임 황영숙 황은혜
 황진아 황진우 황철원 황하영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지사 ㈜도토리 신진중장비학원 여명교회
 오피스넥스(최치길) 올레마트 유벨논편한안과

일반후원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TOVUUCHII 가나안노인주간보호센터 간호재활요양원 강기선 강선희
 강유경 강은광(모모레지던스) 강진근 강희정 개성손만두계산점 계양푸른빛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계양푸른솔지역아동센터 고종섭 곽기복 과사무엘 구교형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구자은 구재립 권혁건
 금강보청기계양센터 김경단(장금이떡) 김경미 김경복 김광성 김동국 김 란 김란희 김부근 김석순
 김석태 김선정 김영호 김예나 김용구 김용숙 김은숙(신흥선박) 김은지 김인숙 김정빈 김주현 김지연
 김지현 김진범 김진석 김진옥(정성약국) 김진희 김찬솔 김창수 김창진 김충식 김충태 김포한신교회
 김현임 김현자 김혜성 나인마이너스투 남기창 농협북인천지점 다사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대동교회 대전쪽방상담소 도농살림 동구쪽방상담소 라명균(짬구상회) 류여옥 마음의고향 문미경
 문태현 문형률 미추홀세무법인 복인천점 박로빈 박명순 박명희 박상호 박성민 박예리 박제현 박종식
 박주희 박준호 박현숙 박효은 백송은 복윤경 복푸드생활건강 블랙야크 사단법인온전한기쁨 사람과산
 사랑나눔미복지회 삼은교회 새날동대문자애인자립생활센터 샌드집 서리담잔기지 서영경(헬느)
 서울특별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선민교회 성경건설㈜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성남아시아교회
 성능모 세기약국 세무법인길벗 세무법인이산 손경화 송영철 수원다시서기 스마일치과 신우기업
 신정수(현대사) 신정은 신향연 신혜순(피자마루) 아라시찰 안수경 안신애 안진우 안철우(안심한의원)

안홍준 양곡교회 양승민(축산물정육백화점) 여신도회 인천연합회 염은경 오미라 오병걸 오성식품
 오이화 용광교회 원순재 원주추어탕 월드플라워 유금순 유석환내과의원 유성에 유영신 윤종배 은성광고
 은하약국 이경중(선두전산) 이관우 이동원 이레자활공동체 이문희 이민자 이봉수 이삭토스트경인
 이선주 이성환 이순락 이승기 이영애 이영윤 이완정 이요한 이은정 이인정 이정순 이정훈 이태수
 이태평 이해영 인사울치과 인성의료재단 인천가공 인천중앙교회 인천풍성한교회 임경희 임종한
 임태식신경정신과 장기옥 재단법인주거복지재단 전국족방상담소협의회 전소이 전주석 정도순 정동근
 정병옥 정병호(옥희네수산) 정상시 정원범 정윤희계법인 정인기획 정현모 제1푸른성노인요양원 조규남
 조 은 조인영 ㈜그린벨트의친구들 ㈜서협문고 두루시스템 주식회사 보릿골푸드 주식회사 제주디딤돌
 주식회사들꽃피는화원 차준호 채드워 최기용 최낙원 최부옥 최사휴 최선옥 최옥주 최용석 최유경
 최정희 최종천 최준호 최혜인 티지엠컴퍼니 한국철물 한미성 한신대학교 한은혜 해남한울회 해뜨는집
 해피하우스 현대떡방 흥동근(아디다스) 홍승우 홍영주 황병윤 황인근 황종권

봉사활동

강현희 고찬교 고찬주 곽안나 권지인 김건호 김나연 김나윤 김동현 김민경 김민호 김서영 김서울 김서현
 김성태 김소영 김승현 김아민 김연아 김연후 김예은 김예정 김은송 김장근 김정민 김주희 김준민 김지수
 김지현 김지현 김지후 김현우 남지은 노연주 류효민 문애경 박겨영 박리안 박세아 박수빈 박시현 박유안
 양윤영 박윤옥 선동민 신민정 엄문영 오승연 오주연 원윤희 원중희 유순영 유재현 유지수 유혜영 이강예
 이규언 이명희 이복남 이상현 이소율 이수빈 이승미 이승아 이애선 이예인 이유진 이은재 이은찬 이재희
 이지효 이준우 이준혁 이찬우 이 혁 이현정 이희원 임희성 장민경 전여진 전해진 정다솜 정지수 정서우
 정서윤 정한미 정혜순 조광연 조성민 조성인 조현숙 진유빈 최아라 최효원 홍나은 홍무진

물품후원

(사)인천내일을여는집 (사)유쾌한공동체 (사)좋은변화 (사)푸른동행 (재)바보의나눔
 (주)떡과는사람들서울 (주)도농살림 (주)클래식패브릭 (주)현대그린푸드 3176중도도매인 강원떡방앗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천본부 경기도·인천노숙인시설연합회 경인농산322번 계산2동행복지센터
 계양구사회복지협의회 계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양구재활용센터 계양구푸드뱅크 계양제빵소
 과자집 광역주거복지센터 구세군 구세군교회 글로벌쉐어 국민건강보험공단부천북부지사 길가온복지회
 길가온혜명 농협은행북인천지점 내리사랑 단지유통 따뜻한밥상 대명상사 대성건축 대성푸드시스템
 더밀 더불어사는마을 던킨도너츠작전점 도넛킬러인천계양점 도농살림 도사미트 동구보건소
 동구자원봉사센터 동구푸드뱅크 동연디자인 동춘교회 두루정 푸레쥬르계양구청점 푸레쥬르박촌점
 푸레쥬르인천효성점 레깅프 로푸드 루츠팜 리엘파트너스변호사 미남에프앤비 바바카페 보네르
 범박동행정복지센터 보라피네 복된교회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부천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부천시청
 부천심는교회부천약대중앙교회 부평구청 부평137번상회 부평164번상회 불랑제리유기농밀가루
 불랑제리유기농밀가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한기장복지재단
 서리담잔기지떡 성하푸드 경기도지회 삼일무역 성하푸드 송추 씨앤피 씨앤피글로벌 아울렛DC
 아이지씨코리아 아침에떡 야심 여성긴급전화1366인천센터 연베이커리 영원무역 예얼(예쁜얼굴)
 오통식품 우양재단 유밸안과 오티스타 이성문(신우기업) 이순옥 이조떡집 이하니 인천도시공사
 인천동구청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여성정책과 인천시청 인천중구가족센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족방상담소 인천힐푸드 인트리 전국노숙인시설협의회 전국족방상담소협의회 주거복지재단
 주식회사 인스텔라 장금이네떡집 종로떡방아간 지미션 지오에프엔지 지파운데이션 찰떡궁합 채움푸드
 최경현 최종천 태산떡방앗간 태우산업 태지유통 트러스트 파riba게트경인여대점 파riba게트굴현점
 파riba게트박촌점 파riba게트인천작전점 파riba게트인천한림점 파riba게트작전역점 파riba게트작전점
 파riba게트효성점 파riba게트효성풍차점 푸딩 피자헛소사점 하버파크호텔 하이테이블한가득축산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매물류 한국에너지공단인천지역본부 한국푸드시스템 한돈자조금 희년 해인교회
 현대마트 현대인프라코어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이 지정기부금 단체 가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2007년도 2분기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 수령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소중한 기부금은 공익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는 **인천내일을여는집 !**

저희 법인의 취지에 공감하는 누구나 다양한 사업에 동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큰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문의

032-556-8004 / homenaeil@naver.com

후원계좌

농협 176-01-172902 (인천내일을여는집)

인천내일을여는집 (해인교회)



사단
법인

인천내일을
여는집

- 주소 _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91
- 전화 _ 032-556-8004 · 팩스 _ 032-544-8348
- 홈페이지 _ <http://homelessshot.or.kr>